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12년째 표류 중

2014년 계획 이후 성과 전무...운전자들 불만
2018년 착공·올해 완공 목표로 추진 계획
재정 부담 담보...대안격 ‘연구특구’ 불확실
공공운수노조 “市수차예 약속...확충 시급”

“십수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담보 상태가 계속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은 그대로입니다.”

광주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아무런 진척없이 10여년 동안 표류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립한 권역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에 장성군 남면 월정리 1-34번지 일원에 2만4천㎡·247면 규모의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게 포함됐다.

예산 사업비는 총 180억원(국비 70%·시비 30%)으로 지난 2018년 착공·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취재 기사가 해당 부지를 살펴본 결과, 터파기로 보이는 일부 공사만 진행됐을 뿐 노면 포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중단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보류된



광주시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국비 지원 중단 등의 이유로 12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일부 공사만 이뤄진 채 방치돼 있다. 사진은 장성군 남면 월정리 1-34번지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예정 부지. /윤찬용 기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거, 지자체의 화물차·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왔으나 2020년을 끝

으로 만료됐다.

이로 인해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재원을 순수 시비로만 충당하게 되면서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 사업은 여태 표류 중인 것으로 파악

됐다.

이 탓에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기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광주 지역 일반·덤프·벤·특수용도 화물차는 총 9만1천379대다.

화물차는 차량별로 전용 차고지가 있긴 하나, 이외 공간에 합법적으로 둘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광주에서 진곡산단(423면)과 평동3차산단(238면) 등 2곳 뿐이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광주시가 2022년 10월31일과 2025년 5월20일 두 차례 노정 교섭에서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조성과 별도로 광주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예정돼 있긴 하다.

다만,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를 광주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공영차고지 확충 없이 주택가와 이면도로 밤샘주차가 개선되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찬용 기자

조롱·혐오 규율하는 ‘일베 금지법’ 발의돼

방치 사이트 삭제·차단 등 조치 명령

이훈기 의원 “과징금·폐쇄까지 필요”

일베저장소(일베) 사이트처럼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베 금지법)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7일 “개정안에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했다”면서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말사·회화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조롱·혐오 유통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

관에서 4·16재단, 5·18기념재단, 5·18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김준봉 5·18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조롱과 혐오가 일부 이용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향엽, 최민희, 정진욱, 장중태, 이광희, 황운하, 김현, 조인철, 양부남, 박지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김진수 기자

美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마케팅”

오월단체 항의성 메일에 사과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오월 단체들에게 사과했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함께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지난 1일 보낸 항의성메일에 대한 답변이 다음 날 도착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회신을 통해 “탱크데이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오월 단체가 요구한 경영진 개입과 스타벅스스코리아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월 단체들은 스타벅스스코리아의 주식 67.5%를 갖고 있는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도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내용을 검

토하겠다”고 회신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세계 72개국·1천여 명의 민주·인권 활동가들에게 탱크데이 사태를 알렸다”며 “함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아파트서 새총으로 쇠구슬 쏜 70대 입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70대가 입건됐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에 북구 신운동 한 아파트 8층에 위치한 자택에서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10여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쇠구슬을 직접 맞은 사람은 없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파손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서 검거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새총도 압수했다. /윤찬용 기자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품, 생활 서비스를 한번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손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과 이자 0% 7개월 0% 14개월 0% 24개월 0%
- 신약 2% / 위 1% / 저 1%
- 국세공과금 연회료 무료 서비스 혜택
- 농협 연회료 0원 / NH카드 연회료 1만 5천 원

합리적인 가격, 걱정 없는,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치로보험

- 일평균 100만 원의 한도까지 보장
- 20~80세, 유증자도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갱신형(해당특약 가입시)
- 정신형 담보 제공
- 첫년도 100% 환급 및 첫년도 100% 환급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경·해외송금을 말하다

- 환전 | 해외여행 |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매매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춘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